同苦同樂의 현장

조 성 욱
동부건설(주) 과장

본사에서수년간근무하다가현장으로발령받아지방으로온지벌써2년이되어간다. 태풍은아니었지만 아스팔트를 뚫을 듯 모질게쏟아지던 엄청난 비도겪어보았고 매서운동장군도, 30도에육박하는새벽열기도 몇번은겪어보았다. 하는일이있는듯 없는 듯 존재감 박약한 건설현장 관리 담당의 일상이 벌써2년이라니….

참아내기힘들었던업무압박의본사생활을뒤로하고 막상 현장에 내려올 때에는 포부와 다짐이 상당하였지만, 2년을돌아보니무엇을하였고무엇을이루었는지회한이적지 않다. 철따라피고지는꽃들과산천의경개도감상하며, 혹은근로자들과현장선후배직원들의가려운곳도긁어주면서, 그리고때로는보고싶은책도읽고주변의산에도자주올라가보리라는야무진꿈-희망을가지고내려왔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다. 공사는 해야 하는데 민원인은끊임없이찾아오고, 날씨도좋지않아서넉 달동안끈질기게비가내려 밤마다 비닐을 덮으러 돌아다니고, 사이비지방지기자들은사진을찍었느니어쨌느니하면서매일찾아오고, 박봉에힘든 현장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툭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나오고…. 그야말로 사면초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책을읽으며등산이니산보로유유자적할것인가! 마음으로는천상의 도원(桃園)을 만끽하고 싶은데 현실은 진흙탕이었다. 그러나쓰레기통에도장미꽃이핀다고누가말했던가! 얼차려중에도국방부시계는돌아가고 모든 난제는세월이 해결해주듯이현실의이전투구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보면향내머금은 한 송이 꽃일 수도 있지않겠는가.

어려운일에부닥쳐합심하여해결의노력을기울이다보면없던 동료애도생기고스스로의 능력도 새로이알게된다. 한지붕아래 일하면서 같은 문제로 고민하다 보면 정도 더 들고 서로의 마음도 더알게된다. 부러진뼈가더단단히붙고비온후에땅이굳듯이 힘든 현장에서의 동고동락(同苦同樂)은애사심과 협동심을 키워준다. 비가온다는 일기예보에다 같이 비닐과마대자루를 들고 현장으로 뛰쳐나가고, 폭설에갇힌 운전자들을 위해 빵과 음료수를 사들고 한겨울의 고속도로를 누비며 제설 작업에 매달리는 중에 동료애가 싹트고 남다른 보람을느낄수있다.

민원인이나 신문 기자, 외부 손님들이 찾아오면 바쁜 업무 중에도 억지로 시간을 내어 인근의 맛난 집으로 찾아다니며 철따라 이름난 음식으로 작은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서울에서는 여간해서 접하기 힘든 산지에서의 싱싱한과채와생선도먹어볼수있다. 물론좋은시간에좋은사람들과함께하면더좋겠지만세상에백점짜리가어디있으랴!

업무가힘들고박봉이라다른회사로이직하려는직원을어르고 달래서 붙잡은 적도 있고, 아쉽게 이별한 적도 있다. 평소에는 바빠서 술 한 잔 하기 어려웠던 친구를 며칠 동안이고 붙잡고 술을 마셨다.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아쉬운지 그속내를 듣기 위해서였다. 필자도술을좋아하는지라원님덕에나팔분다고지겹도록마셨다. 그래서계속근무하기로한사람도있지만끝내고집을꺾지 않고 타사로 옮기고 나서 후회하는 친구도 있다. 물론 더 좋은 조건으로옮긴사람도있지만, 그회사가세계적인금융위기여파로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될 줄은 누가 또 알았으랴. 새옹지마(塞翁之馬)가옛날얘기만은아니었더라! 아무튼퇴사를만류하느라몇날 며칠을붙어서술잔을기울이며속내를주고받으니이제는형제지간처럼가까운사이가되었다. 고난의끝이작은열매로맺혔다하겠다.

어느건설현장이든지, 쉽고편한곳은없을것이다. 비바람눈보라에시달리고펄펄끓는철근을부여잡고, 땅속깊은곳에서, 아찔한계곡 깊은곳부터솟아오른 교각꼭대기에서, 또는망망한겨울바다 한가운데에서 모두들 앞을 향해 가고 있다. 세상에서는좋지 않은시선으로건설업을백안시하지만, 이익률낮은공사현장에서 원가를 줄이고고품질의 완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도 건설인들은땀방울을쏟아내고있다.